

바다 끼고 걷는 길...눈이 파랗게 물든다

울릉도·독도

광주에서 포항까지 버스로 4시간, 포항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으로 3시간이 걸린다. 거리상 울릉도는 쉽게 접하기 힘든 곳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최동단 독도까지 간다면 뱃길로 2시간을 더해야 한다. 하지만 육지에서 만나기 힘든 특산물과 조금 더 원초적인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기꺼이 가방을 챙겨도 좋다.

◇울릉도=도동항에 내리고 나면 자동차와 여행객이 한데 섞여 비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마치 피난민의 행렬을 연상케 한다.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는 도동항을 빠져나오면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육지의 산과 달리 울창한 원시림 같은 울릉도의 산과 70년대를 연상시키는 비좁은 골목길이 잠시 이국적인 느낌에 빠져들게 한다.

도동항 바로 옆에서는 전국에서 손꼽을만한 햅남 해안 산책로가 시작된다. 굽이굽이 해안가를 따라 도는데 기암절벽과 천연동굴이 낯설면서도 신기하다. 산책로 옆 바다는 온통 '에메랄드 빛'으로 바다가 보일 정도로 맑다. 산책로 중간 쉼표처럼 자리한 도동등대까지 왕복하면 2시간이 훌쩍 간다.

도동약수공원 언덕에 있는 독도박물관은 '독도는 우리땅'을 증명하는 역사자료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바로 옆에는 망향봉으로 이어지는 케이블카가 있다. 날씨가 좋다면 망향봉에 서서 직선거리로

동쪽끝 신비의 섬 사계절 천혜 비경

망향봉 정상에 서면 독도 손짓하고

해안가·나리분지...태고 신비 그대로

87.4km 떨어진 독도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산 정상에 로프판매점이 있어 행운(?)을 꼽춰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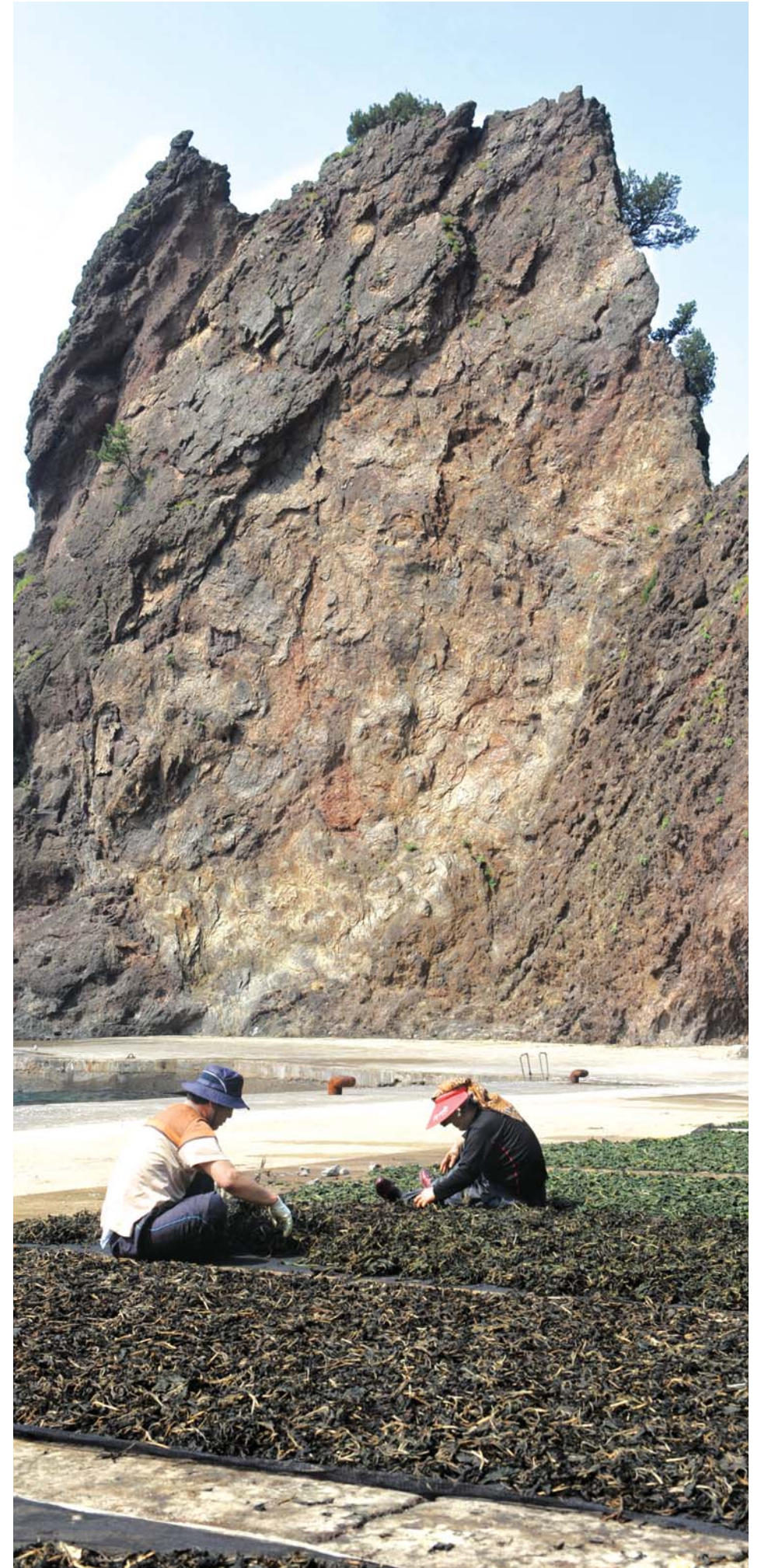
사동쪽으로 가면 와옥사부터 바다를 옆에 두고 달리는 해안일주도로가 시작된다. 가는 내내 바닷속 수초까지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바다는 투명하다. 도로를 타면 통구미와 사자바위, 태하성하산당, 천부항까지 길이 이어진다. 아담한 천부항에서는 성인봉에서 튀어나온 높이 452m의 송곳봉이 눈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차를 되돌려야 한다. 50년째 공사중이라는 울릉도 해안일주도로는 아직도 미완성구간을 4.4km나 남겨놓았기 때문이다. 성인봉 북쪽으로 가면 울릉도가 화산섬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화구원이 존재한다. 나리분지다. 오르막을 타고 길을 가다 어느새 광활한 땅이 펼쳐지는 데 울릉도 유일의 평지다. 너와집과 투막집 등 울릉도의 전통집을 볼 수 있다. 삼나무와 부지깥이나물, 미역취나무 등 울릉도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산채비빔밥도 별미다.

◇독도=도동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2시간을 달려야 한다. 파도가 잠잠하다면 다행이지만 먼 바다 특성상 배말미를 감수해야 한다. 창 밖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며 배가 독도에 접안하면 독도경비대 대원들이 경례로 여행객을 맞는다. 파도가 거세면 접안도 힘들어 독도에 발을 붙이는 것도 운이 좋아야 한다. 배에서 내리면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동도와 서도로 나뉜 '우리땅' 독도를 볼 수 있다. 동도 정상은 독도경비대 숙소 등이 있고, 서도는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성도씨 부부가 살고 있다. 지금은 꿩이갈매기 번식철이라선 전체가 갈매기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 여행객은 아쉽지만 독도 선착장 부근에서 20분밖에 머물 수 없다. 언제 날씨가 급변할 지 몰라 시간이 지체되면 배가 뜰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착장 인근에 방파제가 있다면 여유 시간은 한결 늘어나겠지만 아직 방파제 공사는 요원한 상황이다.

/글·사진=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독도는 지금 꿩이갈매기의 번식이 한창이다. 독도 경비대가 있는 동도 정상에서 민간인 출입 금지 지역인 서도를 바라본 모습.



울릉도 주민들이 특산물인 부지깥이나물 말리기에 여념이 없다. 뒤에 보이는 바위는 통구미 마을의 거북바위.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ibung.com

공정직영
원칙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다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간다.
5. 장독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표판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로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속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홍기 없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미터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구멍이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병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산신하니 시원하고 선홍기 안들어오고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쉽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성순용-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시물,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www.chilman.co.kr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